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9년 2월 23일 서울시 9급(A책형)

2019. 02. 23.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1. 음운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리의 강약이나 고저 등은 분절되지 않으므로 음운이라고 할 수 없다.

② 음운은 의미를 구별해 주는 최소의 단위이므로 최소 대립쌍을 통해 한 언어의 음운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음운은 몇 개의 변이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제로 들리는 소리가 다른 경우에도 하나의 음운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음운은 실제적인 소리라기보다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기호라고 보아야 한다.

01 ① 현대문법-음운의 개념

음운(音韻)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며, 분절음소와 비분절운소로 나눌 수 있다. 분절 음소는 자음과 모음을 뜻하고, 비분절 운소는 자음과 모음 이외의 의미 구별에 참여하는 요소. 소리의 길이, 높낮이 등이다. 비분절 음운도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인 음운의 한 종류이다.

[오답 풀이]

② 최소 대립쌍(最小 對立雙)은 언어에 있어서 한 말소리에 음운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이용하는 두 개 이상의 단어쌍를 말한다. 어떤 언어가 최소대립쌍이 되려면 크게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하나의 분절음이 확실히 다르고, 그 음을 제외한 모든 음은 완전히 똑같아야 한다. 두 번째로, 최소대립쌍이 되려면 그 다른 단 하나의 음으로 인해 의미의 구별이 일어나야 한다. 예를 들면 한국어의 '달-딸-탈'은 중성 모음과 종성 자음은 공통항으로 같지만, 초성의 'ㄷ-ㄸ-ㅌ'이 달라서 의미를 구별한다. 이러한 한 부분만 다른 한 쌍의 단어들을 최소대립쌍이라고 한다.

③ 한국어의 음소는 자음과 모음 소리이다. '음소'는 어떤 단어의 의미차이를 만들어내는 최소의 음운적 단위이다. 변이음은, 한 음소가 구체적인 환경에서 다른 소리들로 실현될 때, 그 다른 소리들을 일컬어 부르는 말이다. '이음'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ㄹ'이 '달'에서는 [l]로, '바람'에서는 [r]로 소리가 난다. 이때 [l], [r]은 음소 'ㄹ'의 변이음이다. 따라서 '음소'가 인간이 심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소리'라면, '변이음'은 실제 환경에서 물리적으로 실현되는 '구체적인 소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ㄹ'이 [l], [r]의 변이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제로 들리는 소리가 다른 경우에도 'ㄹ'은 하나의 음운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음운은 인간이 의미를 구별하는 '추상적인 소리', 즉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기호이다.

2. 다음 문장 중 어법에 가장 맞는 것은?

① 금융 당국은 내년 금리가 올해보다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면서 대출 이자율이 2% 이상 오를 것으로 예측하였다.

② 작성 내용의 정정 또는 신청인의 서명이 없는 서류는 무효입니다.

③ 12월 중에 한-중 정상회담이 다시 한 번 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④ 그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단 하루도 연습을 쉬지 않았다.

02 ① 비문학-비문의 유형

① '금융 당국은(주어)~것으로(부사어)~내다보면서~것으로(부사어)~예측하였다(서술어)', '금리가(주어) 오를(서술어)', '이자율이(주어)~오를(서술어)' 등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바르게 되어 있다. 또한 서술어 '내다보다'와 예측하다'는 부사어나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데, 모두 부사어의 호응도 맞게 이루어진 문장이다.

[오답 풀이]

② 부사 '또는'은 대등적 접속 기능을 한다. 따라서 제시 문장은 '작성 내용의 정정이 없는+신청인의 서명이 없는'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신청인의 서명이 없는 서류는 무효이다'는 적절한 문장이지만, '작성 내용의 정정이 없는 서류는 무효이다'는 틀린 문장이다. 따라서 '작성 내용의 정정이 있거나 신청인의 서명이 없는 서류는 무효입니다.'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보여집니다'는 '보(어근)+이(피동접사)+어지(통사적 피동형)+ㅂ니다(종결어미)'의 구성으로, 이중피동이다. 이중피동은 어법에 맞지 않은 표현이므로 '보입니다'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그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단 하루도 연습을 쉬지 않았다.

④ '-고'는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을 대등하게 벌여 놓는 연결 어미이다. 전체 문장의 주어는 '그의 목표는'으로 앞 문장의 서술어 '것이었고'는 올바른 호응이다. 그러나 뒤 문장의 서술어 '쉬지 않았다'와 호응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뒤 문장의 서술어를 따로 제시해야 한다. '그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단 하루도 연습을 쉬지 않았다.'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3. 속담과 한자성어의 뜻이 가장 비슷한 것은?

①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 순망치한(脣亡齒寒)

②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 하로동선(夏爐冬扇)

③ 우물 안의 개구리 - 하충의빙(夏蟲疑氷)

④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 설중송백(雪中松柏)

03 ③ 한문- 한자성어와 속담

③ '우물 안 개구리'는 .넓은 세상의 형편을 알지 못하는 사람, 견식이 좁아 저만 잘난 줄로 아는 사람을 비꼬는 속담이다. '하충의빙(夏蟲疑氷)'은 여름의 벌레는 얼음을 안 믿는다는 뜻으로, 견식이 좁음을 비유해 이르는 성어이다. 따라서 '우물 안 개구리'와 같은 의미이다.

[오답 풀이]

①

•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요긴한 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럭저럭 살아 나갈 수 있음을 이르는 말.

• 순망치한(脣亡齒寒 : 脣 입술 순/亡 망할 망/齒 이 치/寒 찰 한) 입술을 잃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 가까운 사이의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기 어려움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 서로 도우며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 또는 서로 도움으로써 성립되는 관계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

②

•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평소에 흔하던 것도 막상 긴하게 쓰려고 구하면 없다는 말.

• 하로동선(夏爐冬扇 : 夏 여름 하/爐 화로 로/冬 겨울 동/扇 부채 선) '여름의 화로와 겨울의 부채'라는 뜻으로, 아무 소용없는 말이나 재주를

놀라운 적중률!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문제풀이 No.1 완벽적중신화!

비유하여 이르는 말. 또는 철에 맞지 않거나 쓸모없는 사물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반] 하갈동구(夏葛冬裘)
③
• 우물 안의 개구리: 넓은 세상의 형편을 알지 못하는 사람, 견식이 좁아 저만 잘난 줄로 아는 사람을 비꼬는 속담.
• 하충의빙(夏蟲疑氷 : 夏 여름 하/蟲 벌레 충/疑 의심할 의/氷 얼음 빙) 여름의 벌레는 얼음을 안 믿는다는 뜻으로, 견식(見識)이 좁음을 비유해 이르는 말. [유] 하충어빙(夏蟲語氷), 선부지설(蟬不知雪), 좌정관천(坐井觀天), 척택지예(尺澤之鯢). [속] 우물 안 개구리
④
•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자손이 빈한해지면 선산의 나무까지 팔아버리나 줄기가 굽어 쓸모없는 것은 그대로 남게 된다는 뜻으로,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도리어 제구실을 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설중송백(雪中松柏: 雪 눈 설/中 가운데 중/松 소나무 송/柏 측백 백) 눈 속의 소나무와 잣나무라는 뜻으로, 높고 굳은 절개를 이르는 말.

4. <보기>는 복수 표준어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따른 표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① 가는허리 / 잔허리
② 고깃간 / 정육간
③ 관계없다 / 상관없다
④ 기세부리다 / 기세피우다

04 ② 국어생활-표준어
<보기>는 표준어 규정 제26항의 설명이다. 쇠고기, 돼지고기 따위의 고기를 파는 가게를 일컬어, '푸줏간' 또는 '고깃간'이라 한다. '고깃간'과 '푸줏간'은 모두 널리 쓰이므로 둘 다 표준어로 삼는다. 이를 한자어로 파악해 '정육간, 육간(肉間)'이라 쓰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고깃관, 푸줏관, 다림방'도 표준어가 아니다.

[오답 풀이]
<보기>는 표준어 규정 제26항에 따르면, ①의 '가는허리 / 잔허리', ③의 '관계없다 / 상관없다', ④의 '기세부리다 / 기세피우다'는 모두 널리 쓰이므로 둘 다 표준어로 삼는다.

5. <보기>의 로마자 표기가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기>
ㄱ. 오죽헌 Ojukeon
ㄴ. 김복남(인명) Kim Bok-nam
ㄷ. 선릉 Sunneung
ㄹ. 합덕 Hapdeok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05 ③ 국어생활-로마자 표기법
ㄴ. 김복남(인명) Kim Bok-nam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 또한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김복남'은 [김봉남]으로 발음하지만, 'Kim Boknam' 또는 'Kim Bok-nam'으로 표기한다.
참고로, 로마자 표기법의 원칙에 따른다면 '이'는 'I'로, '김'은 'Gim'으로 쓰는 것이 바르다. 다만 인명의 경우 관례적으로 다른 표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러한 표기를 인정한다.
ㄹ. 합덕[합떡] Hapdeok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표기대로 'Hapdeok'으로 표기한다.

[오답 풀이]
ㄱ. 오죽헌[오주컨] Ojukeon→Ojukheon
. 'ㄱ, ㄷ, ㅂ, ㅈ'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소리 나는 경우에 발음대로 표기하지만,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따라서 [오주컨]으로 발음 되지만, 'ㅎ'을 밝혀 'Ojukheon'으로 표기한다.
ㄷ. 선릉[설릉] Sunneung→Seolleung
'ㄹ'은 초성 자리에서는 'r'로, 종성 자리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은 'll'로 적는다. '선릉'은 [설릉]으로 발음하고, 'Seolleung'으로 표기한다.

6. <보기>의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公無渡河
公竟渡河
墮河而死
當奈公何

① 황조가와 더불어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서사시다.
② 한시와 함께 번역한 시가가 따로 전한다.
③ '물'의 상징적 의미를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④ 몇 번을 죽어도 충성의 마음이 변치 않음을 노래하고 있다.

06 ③ 고전문학-고대가요: 종합적 감상
<보기>의 작품은 고대가요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이다. 이 노래에서 가장 중심을 이루는 소재는 '물[河]'이다. 제1행에서의 '물[河]'은 남편에 대한 화자의 충만한 '사랑'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2행의 '물[河]'은 사랑의 종말과 함께 임과의 '이별'을 의미한다. 제3행의 '물[河]'은 임의 죽음을 내포하며, 임과 화자 사이의 뛰어넘을 수 없는 단절감(죽음)을 나타낸다.

[오답 풀이]
①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는 '구지가', '해가', 고구려의 유리왕이 지은

‘황조가’, ‘정읍사’와 함께 고대 가요에 속하며, 문헌으로 남아 있는 고대 가요 중에 황조가와 더불어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 가장 오래된)의 서정시이다.

②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는 한시를 번역한 작품이 아니라 구전되다가 후대에 한문으로 기록된 한역시가이다.

④ <보기>의 시가는 고조선 때 백수광부가 강을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자 그의 아내가 이를 한탄하면서 불렀다는 노래로, ‘사별한 임에 대한 정한(精悍)’을 노래한 한역시가이다.

※출전: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

1. 해석

公無渡河(공무도하)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公竟渡河(공경도하) 임은 그예 물을 건너시네.
墮河而死(타하이사)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當奈公何(당내공하) 아아, 가신 임을 어찌할거나.

2. 해제: 고조선 때 백수광부가 강을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자 그의 아내가 이를 한탄하면서 불렀다는 노래로, 악곡명을 따라 ‘공후인(箜篌引)’이라고도 한다. 고대 문학이 집단적 서사 가요에서 개인적 서정 가요로 이행하는 시기의 작품으로, ‘사별한 임에 대한 정한(精悍)’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한(情恨)’의 정서를 보여주는 작품의 원류에 해당한다.

3. 핵심 정리

1) 갈래: 고대 가요, 한역시, 서정시
2) 성격: 애상적, 체념적, 직서적
3) 형식: 4언 4구의 한역시가
4) 표현
① 물을 경계로 한 대립 구조
② ‘물’의 상징적 의미를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5) 주제: 임과의 사별을 슬퍼함
6) 의의:
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서정가요
② 원시 집단 가요에서 개인적 서정가요로 넘어가는 단계의 노래
③ 우리 민족의 전통적 정서인 한(恨)을 바탕으로 한 노래
7) 별칭: 공후인(箜篌引)

7. <보기>의 두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임 그린 상사몽이 ㉠실솔의 넋이 되어
가을철 깊은 밤에 임의 방에 들었다가
날 잊고 깊이 든 잠을 깨워 볼까 하노라.

㈏ 이 몸이 죽어져서 ㉡접동새 넋이 되어
이화 핀 가지 속잎에 싸였다가
밤중만 살아서 우리 임의 귀에 들리리라.

① ㉠은 귀뚜라미를 뜻한다.
② ㈎, ㈏ 모두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③ ㉡은 울음소리가 돌아갈 귀(歸), 촉나라 촉(蜀), ‘귀촉 귀촉’으로 들려 귀촉도라고도 한다.
④ ㈎, ㈏의 작가는 모두 미상이다.

07 ④ 고전문학-고시조

(나)는 작자 미상의 미상이지만, ㈎ 박효관의 작품이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초장은 임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 꿈에서까지 임을 볼 정도인 화자의 애타는 마음이 귀뚜라미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표현이다.

③ 중국 고서의 하나인 『환우기寰宇記』에는 귀촉도에 얽힌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중국 주나라 말기 촉나라에 두우(杜宇)라는 왕이 있었는데 제호(帝號)를 망제(望帝)라 하였다. 촉나라의 망제는 평소 자신이 신임했던 '별령'이라는 신하에게 배신을 당해 국외로 추방된다. 하루 아침에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난 그는 그만 화병을 얻어 타국에서 죽게 된다. 그 후 사람들은 망제가 죽어서 귀촉도가 되었다고 믿었다. 귀촉도는 저녁부터 새벽 무렵까지 ‘귀촉 귀촉’하며 촉나라를 몹시 그리워한다고 생각했다. 귀촉도(歸蜀道)는 본래 촉나라로 돌아가는 길이란 뜻이다. ‘두견’이란 두우에서 나온 이름이요, ‘불여귀’란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요, ‘망제혼’이란 망제의 죽은 혼이라는 뜻이니 이 모두는 두우의 이야기에 관련된 것들이다.

8. 밑줄 친 단어의 형태가 옳지 않은 것은?

① 멀리서 보기와 달리 산이 <u>가팔라서</u> 여러 번 쉬었다.
② 예산이 100만 원 이상 <u>모잘라서</u> 구입을 포기해야 했다.
③ 영혼을 <u>불살라서</u> 이룬 깨달음이니 더욱 소중하다.
④ 말이며 행동이 모두 <u>올발라서</u>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다.

08 ② 현대문법-한글맞춤법

기준이 되는 양이나 정도에 미치지 못하다는 뜻의 동사는 ‘모자라다’이다. 따라서 ‘모자라+아서=모자라서’이다. 그런데 이를 '모자르다'고 잘못 알고 ‘모자르다, 모자른, 모자르니, 모잘라서’ 등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모자라다, 모자란, 모자라니, 모자라서’ 등으로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① ‘가파르다’는 산이나 길이 몹시 기울어져 있다는 뜻의 형용사이다. ‘가파르(어간)+아서(연결어미)=가팔라서’로, 어간의 ‘으’가 탈락하고, ‘ㄹ’이 덧생기는 르불규칙 활용을 한다.

③ ‘불사르다’는 ‘불에 태워 없애다, 어떤 것을 남김없이 없애 버리다’는 뜻의 동사이며, ‘불사르+아서=불살라서’로, 어간의 ‘으’가 탈락하고, ‘ㄹ’이 덧생기는 르불규칙 활용을 한다. 참고로, ‘불사르다’와 ‘사르다’는 모두 널리 쓰이므로 둘 다 표준어로 삼는다.

④ ‘올바르다’는 말이나 생각, 행동 따위가 이치나 규범에서 벗어남이 없이 옳고 바르다는 뜻의 형용사이며, ‘올바르+아서=올발라서’로, 어간의 ‘으’가 탈락하고, ‘ㄹ’이 덧생기는 르불규칙 활용을 한다. ‘옳바르다’는 바르지 않은 표현이다.

9. 한자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장(延長)', '하산(下山)'은 '서술어+부사어'의 구조이다.

② '인간(人間)', '한국인(韓國人)'의 '인'은 모두 어근이다.

③ '우정(友情)', '대문(大門)'의 구성 성분은 비자립적 어근과 단어이다.

④ '시시각각(時時刻刻)', '명명백백(明明白白)'은 고유어의 반복합성어 구성 방식과 다르다.

09 ② 한문-한자어의 구성

②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인간'의 형태 구분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일어'로 판단된다. 그러나 '-인(人)'은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사람'의 뜻을 더하는 경우 접미사이다. 따라서 '한국인(韓國人)'의 '인'은 어근이 아니라 접미사이다.

[오답 풀이]

① 연장(延長: 延 늘일 연/長 길 장)은 '늘이다/길게', '하산(下山: 下 아래 하/山 메 산)'은 '내려오다/산에서'의 구성이므로 '서술어+부사어' 구조이다.

③ 한자 두 자로 이루어진 한자어의 단어 형성법 분석은 문법적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2음절 한자어는 일괄적으로 단어의 직접 구성 성분을 분석하지 않다. 다만,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우정, 대문'을 합성어로 본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분석하면 '우정(友情: 友 벗 우/情 뜻 정)', '대문(大門: 大 큰 대/門 문 문)'은 '우(友)'와 '대(大)'의 비자립적 어근과 단어(자립적)인 '정(情)', '문(門)'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④ 고유어는 '가지가지, 구석구석, 마디마디' 등 'AB'라는 단어가 'ABAB'식의 반복 합성어를 이룬다. 그러나 한자어는 이와 달리 '시시각각(時時刻刻)', '명명백백(明明白白)'처럼 'AB'라는 단어가 'AABB'식의 반복 합성어를 이룬다. 고유어에서는 반복되는 어기를 단일 형태소로 보는 데 반하여, 한자어에서는 2개의 형태소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10. 다음 중 띄어쓰기가 가장 옳은 것은?

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② 데칸 고원은 인도 중부와 남부에 위치한 고원이다.

③ 못 본 사이에 키가 전봇대 만큼 자랐구나!

④ 이번 행사에서는 쓸모 있는 주머니만들기를 하였다.

10 ① 국어생활-띄어쓰기

'길'은 흔히 고유어 수 뒤에 쓰여 길이의 단위를 나타내는 (단위성)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한 길'은 여덟 자, 사람의 키 정도의 길이이다.

[오답 풀이]

② 데칸 고원은 → 데칸고원

'해, 섬, 강, 산, 산맥, 고원, 인, 족, 어……' 등이 외래어에 붙을 때에는 띄어 쓰고 고유어나 한자어에 붙을 때에는 붙여 썼다. 그러나 2017년 외래어 표기법의 변경된 내용에 따라 '해, 섬, 강, 산, 산맥, 고원, 인, 족, 어……' 등의 앞에 어떤 말이 오느냐에 관계없이 앞말에 붙여 쓴다.

③ 전봇대 만큼 → 전봇대만큼

'만큼'은 앞말이 용언인 경우에는 의존 명사로서 쓰인 것이고, 앞말이 체언이나 조사일 경우에는 조사로 쓰인 것이다. 즉 '만큼'이 체언의 바로 뒤에 붙어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④ 쓸모 있는 주머니만들기를 → 쓸모 있는 주머니 만들기를

명사가 용언의 관형사형으로 된 관형어의 수식을 받거나, 두 개(이상)의 체언이 접속 조사로 연결되는 구조일 때는 붙여 쓰지 않는다. 즉 명사 '주머니'는 용언의 관형사형(=관형어) '있는'의 수식을 받고 있는 구조이므로 각각의 단어로 띄어 써야 한다.

[참고]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원칙	허용
만성 골수성 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
중거리 탄도 유도탄	중거리탄도유도탄
두 팔 들어 가슴 벌리기	두팔들어가슴벌리기
무릎 대어 돌리기	무릎대어돌리기
여름 채소 가꾸기	여름채소가꾸기

다만, 명사가 용언의 관형사형으로 된 관형어의 수식을 받거나, 두 개(이상)의 체언이 접속 조사로 연결되는 구조일 때는 붙여 쓰지 않는다.

간단한 도면 그리기
쓸모 있는 주머니 만들기
아름다운 노래 부르기
바닷말과 물고기 기르기

두 개(이상)의 전문 용어가 접속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전문 용어 단위로 붙여 쓸 수 있다.

감자찌기와 달걀삶기
기구만들기와 기구다루기
도면그리기와 도면읽기

11. 형태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① 떠내려갔다 ② 따라 버렸다

③ 빌어먹었다 ④ 여쭈어봤다

11 ① 현대문법-형태소의 개수

① 떠내려갔다: 뜨(용언의 어근)+어(연결어미)+내리(용언의 어간)+어(연결어미)+가(용언의 어근)+았(과거시제선어말 어미)+다(종결어미)=7개

[오답 풀이]

② 따라 버렸다: 따르(용언의 어근)+아(연결어미)+버리(용언의 어근)+었(과거시제선어말어미)+다(종결어미)=5개

③ 빌어먹었다: 빌(용언의 어근)+어(연결어미)+먹(용언의 어근)+었(과거시제선어말어미)+다(종결어미)=5개

④ 여쭈어봤다: 여쭈(용언의 어근)+어(연결어미)+보(용언의 어근)+았(과거시제선어말어미)+다(종결어미)=5개

12.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이 아닌 것은?
① 묻다(問) ② 덥다(暑)
③ 낫다(愈) ④ 놀다(遊)

12 ④ 현대문법-용언의 활용
용언의 어간에 모음으로 된 어미를 붙여서 어간이나 어미가 변하면 불규칙 활용용언이다.
④의 '놀다(遊: 놀 유)'는 '놀(어간)+아(어미)=놀아'로, 어간이나 어미가 변하지 않는 규칙활용용언이다.

[오답 풀이]
① '묻다(問: 물을 문)'는 '묻(어간)+어(어미)=물어'로 어간의 끝음 'ㄷ'이 'ㄹ'로 변하는 'ㄷ'불규칙활용 용언이다. 참고로, '흙이나 다른 물건 속에 넣어 보이지 않게 쌓아 덮다'의 '묻다(매장(埋葬))'는 '묻+어=묻어'로 규칙활용을 한다.
②의 '덥다(暑: 더울 서)'는 '덥(어간)+어(어미)=더워'로, 어간의 끝입 'ㅂ'이 'ㅜ'로 변하는 'ㅂ'불규칙활용 용언이다.
③ '낫다(愈: 병이 낫다 유)'는 '낫(어간)+아(어미)=나아'로, 어간의 끝음 'ㅅ'이 탈락하는 'ㅅ'불규칙활용 용언이다.

13. <보기>의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首陽山(수양산) 바라보며 夷齊(이제)를 恨(한)ᄒᆞ노라.
주려 주글진들 採薇(채미)도 ᄒᆞᄂᆞᆫ 것가.
비록애 푸새엣 거신들 긔 뉘 짜헤 낫ᄃᆞ니.

① 시인은 사육신의 한 명이다.
② 중의법을 사용하고 있다.
③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④ 단종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고 있다.

13 ④ 고전문학-고시조의 감상
제시 작품은 성삼문의 절의가(絶義歌)로서, 세조가 단종을 폐위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자, 이에 항거하여 단종에 대한 자신의 굳은 지조와 의지를 강조한 작품이다. 복수의 다짐은 드러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사육신(死六臣)은 1456년 단종 복위에 목숨을 바친 인물들 가운데 남효온의 <육신전>에 소개된 성삼문・박팽년・하위지・이개・유성원・유응부 6명을 가리킨다.
② 수양산(首陽山)은 백이, 숙제가 은둔 생활을 한 중국의 산을 뜻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수양 대군을 가리키기도 한다. 따라서 '수양산'은 산 이름과 수양 대군[세조]을 뜻하는 중의법이다.
③ 중국의 백이(伯夷)와 숙제(叔齊)의 고사를 인용하였다. 백이와 숙제가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캐어 먹다가 굶어 죽었다 하여 충절의 인물로 알려진 이들을 작가는 원망한다고 하여 기존의 상식을 뒤엎고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제보다 더 굳은 지조를 지녔음을 외치는 표현이다.

※백이(伯夷)와 숙제(叔齊)의 고사
중국 은(殷)·주(周)나라 교체기인 BC 1100년 무렵의 전설적 성인(聖人) 형제. 백(伯)·숙(叔)은 장유(長幼)를 나타낸다. 《사기(史記)》 <백이열전>에 의하면, 은나라 때의 고죽국(孤竹國)의 국군(國君) 아들로서, 아버지가 죽은 뒤 왕위를 사양하고, 함께 나라를 도망쳐 주나라의 서백창(西伯昌:文王)의 덕을 사모하여 주나라로 갔다. 그러나 주나라의 무왕(武王)이 아버지 문왕이 죽은 뒤, 은나라 말 주왕(紂王)이 폭정을 일삼으므로, 제후 서백[西伯-주왕(周王)]의 아들 발[發-주무왕(周武王)]이 이를 치려 하자, 백이 숙제는 "신하로서 군주를 치는 것이 어찌 인(仁)이라 하겠는가?" 하고, 만류했지만, 발이 끝내 주(紂)를 치는 것을 보고 "주(周)나라의 곡식은 먹지않으리라." 하고 수양산(首陽山)에 들어가 고사리를 뜯어 먹다가 굶주려 죽었다. 이로부터 후세 사람들은 충의와 절개를 일컬을 때면 으레 이들 형제를 들어 말하게 되었다.

※출전: 성삼문의 절의가, 연군가
1) 해제: 세조가 단종을 폐위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자, 이에 항거한 작가가 자신의 위치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절의가의 대표작이다. 은나라의 충신 백이, 숙제와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의 굳은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2) 주제 : 굳은 절의와 지조
3) 현대어 풀이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남들이 다 절개가 굳은 선비라고 말하는) 백이와 숙제를 오히려 지조가 굳지 못하다고 꾸짖으며 한탄한다.
차라리 굶주려 죽을지언정 고사리를 뜯어먹어서야 되겠는가?
비록 산에 자라는 풀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누구의 땅에서 났는가?

14. <보기>의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우ᄂᆞᆫ 거시 벅구기가 프른 거시 버들숩가.
이어라 이어라 漁어村촌 두어 집이 닛 속의 나락들락.
至지국悤총 至지국悤총 於어思ᄉᆞ臥와
말가ᄒᆞᆫ 기픈 소희 온갇 고기 뛰노ᄂᆞ다.

년닙희 밥 싸 두고 반찬으란 쟝만 마라.
닫 드러라 닫 드러라 靑청蒻약笠립은 써 잇노라,
綠녹蓑사衣의 가져오나.
至지국悤총 至지국悤총 於어思ᄉᆞ臥와
無무心심ᄒᆞᆫ 白백鷗구ᄂᆞᆫ 내 좃ᄂᆞᆫ가 제 좃ᄂᆞᆫ가.

①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③ 대구법을 사용하고 있다.
④ 후렴구를 제외하면 전형적인 3장 6구의 시조 형식을 갖추고 있다.

14 ① 고전문학-고시조의 표현상 특징
① 윤선도가 지은 40수의 연시조인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이다. 봄 노래(春詞)·여름 노래(夏詞)·가을 노래(秋詞)·겨울 노래(冬詞)로 나뉘어 각각

10수씩 모두 40수로, 철따라 펼쳐지는 자연의 경치와 어부(漁父) 생활의 흥취를 노래한 강호한정가(江湖閑情歌)이다.

[오답 풀이]
②, ③ '우는 거시 벅구기가'의 청각적이면서 동적(動的) 표현에, '우는 거시 벅구기가 프른 거시 버들숩가'의 시각적이면서 정적(靜的) 표현이 대구법으로 조화를 이루어 평화로운 어촌 마을의 봄 경치를 잘 드러내고 있다.
④ 각 수에 나타나는 후렴구를 빼면 각기 초장, 중장, 종장 형태의 평시조가 된다.

※출전: 윤선도,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1. 해제: 고산(孤山) 윤선도가 지은 40수의 연시조이다. 작자가 65세 되던 해에 벼슬을 버리고 보길도(甫吉島)의 부용동(芙蓉洞)에 들어가 한적한 나날을 보내면서 지은 노래이다. 봄 노래(春詞)·여름 노래(夏詞)·가을 노래(秋詞)·겨울 노래(冬詞)로 나뉘어 각각 10수씩 모두 40수로 되었다. 고려 때부터 전하던 '어부가(漁父歌)'를 이현보(李賢輔)가 9장으로 고쳐 지었고, 다시 윤선도가 시조의 형식에 여음만 넣어 완성한 것이다.
2. 핵심 정리
1) 갈래 : 연시조 - 춘, 하, 추, 동 각 10수 (모두 40수)
2) 성격 : 강호한정가(江湖閑情歌)
3) 특징
• 초장과 중장 사이, 중장과 종장 사이에 고려 속요와 같은 여음을 사용
• 종장 음수율 3,4,3,4 (이유는 분분하나 연시조로서 시상의 이어짐을 표현한 듯함)
4) 의의 : 고려 말부터 작자 미상의 <어부가(漁父歌)>가 전해오던 것이 있었는데, 중종 때 이현보가 이를 바탕으로 장가 9장, 단가 5수의 <어부사(漁父詞)>로 개작했고, 이것을 고산 윤선도는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로 만듦
5) 형성과정 : 어부가(漁父歌, 고려, 작자 미상) → 어부가(漁父歌, 조선, 이현보 개작) →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조선 후기, 윤선도)
6) 주제 : 강호의 한정(閑情), 철따라 펼쳐지는 자연의 경치와 어부(漁父) 생활의 흥취
3. 제시 작품의 현대어 해석
• 춘사4
1) 주제 : 출항 후 멀리 보이는 강촌의 아름다운 풍경
2) 의의 : 순수 국어 사용과 언어의 조탁이 참신하여 어부사시사 중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됨.
3) 현대어 풀이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노를저어라, 노를저어라.>
(배가 쏜살같이 나아가니) 어촌의 두어 집이 안개 속에 들락날락한다.
<찌거덩 찌거덩 어야차!>
맑고도 깊은 소(바다)에서 온갖 고기가 뛰논다.
• 하사2
1) 주제 : 바다로 떠날 준비를 마치는 광경
2) 현대어 풀이
연꽃 잎에 밥을 싸 두고 반찬은 장만하지 말아라.
<닻을 들어라, 닻을 들어라.>
대삿갓은 쓰고 있다. 도롱이를 가지고 왔느냐?
<찌거덩 찌거덩 어야차!>
사심이 없는 갈매기를 내가 따르는 건가, 갈매기가 나를 따르는 것인가?

15. <보기>와 가장 관련이 없는 고사성어는?

<보기>
섬 실은 천리마(千里馬)를 알아 볼 이 뉘 있으리
십년(十年) 역상(櫪上)에 속절없이 다 늙도다
어디서 살진 쇠양마(馬)는 외용지용 하느니

① 髀肉之嘆 ② 招搖過市
③ 不識泰山 ④ 麥秀之嘆

15 ④ 고전문학-고시조: 적절한 한자성어
제시 작품은 초장에서 자신을 땔나무를 실은 천리마에 비유하여 능력은 뛰어난데 포교로 다녔던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종장에서 재능도 없으면서 우줄거리는 양반들을 살찌고 둔한 말이라 하여 자신의 불만을 표출했다. ④의 '맥수지탄(麥秀之嘆)'은 '보리만 무성하게 자란 것을 탄식함'이라는 뜻으로, 고국의 멸망을 탄식한다는 뜻이다. 제시 작품과 관계가 없다.

[오답 풀이]
① 비육지탄(髀肉之嘆)는 '넓적다리에 살이 붙음을 탄식한다'라는 뜻으로, 자기의 뜻을 펴지 못하고 허송세월하는 것을 한탄하다 성공할 기회를 잃고 공연히 허송세월만 보냄을 탄식하는 뜻으로 초장과 중장에 적용할 수 있다.
② 초요과시(招搖過市)는 남의 이목(耳目)을 끌도록 요란스럽게 하며 저자거리를 지나간다는 뜻으로, 허풍을 떨며 요란하게 사람의 이목(耳目)을 끄는 것을 비유하는 성어이다. 종장에서 재능도 없으면서 우줄거리는 양반들을 비유할 수 있다.
③ 불식태산(不識泰山)은 '태산(泰山)을 모른다'는 뜻으로, 큰 인물의 참모습을 알아보지 못한 것을 말한다. 초장과 중장에서 '큰 인물'인 자신을 몰라주는 세상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다.

① 비육지탄(髀肉之嘆 : 髀 넓적다리 비/肉 고기 육/之 갈 지/嘆 탄식할 탄) '넓적다리에 살이 붙음을 탄식한다'라는 뜻으로, ㉠ 자기의 뜻을 펴지 못하고 허송세월하는 것을 한탄하다 성공할 기회를 잃고 공연히 허송세월만 보냄을 탄식하는 말. ㉡ 영웅이 때를 만나지 못하여 싸움에 나가지 못하고 넓적다리에 헛된 살만 쪄 가는 것을 한탄한다는 말에서 나옴.
② 초요과시(招搖過市: 招 부를 초/搖 흔들 요/過 지날 과/市 저자 시) 남의 이목(耳目)을 끌도록 요란스럽게 하며 저자거리를 지나간다는 뜻으로, 허풍을 떨며 요란하게 사람의 이목(耳目)을 끄는 것을 비유하는 말.
예 돈 좀 벌었다고 좋은 차 몰고 고향에 와서 그렇게 '초요과시'를 하며 사람들 기죽여 봐라. 아마 모두들 너를 욕할 것이다.
③ 불식태산(不識泰山: 不 아닐 불/識 알 식/泰 클 태/山 뫼 산) '태산(泰山)을 모른다'는 뜻으로, 큰 인물의 참모습을 알아보지 못한 것을 말한다.
④ 맥수지탄(麥秀之歎 : 麥 보리 맥/秀 빼어날 수/之 갈 지/歎 탄식할 탄) 맥수지탄(麥秀之嘆). '보리만 무성하게 자란 것을 탄식함'이라는 뜻으로, 고국의 멸망을 탄식함. [유] 서리지탄(黍離之歎)

※출전: 김천택의 시조
천리마와 쇠양마(馬)를 대조시켜 자질과 재능에 따라 사회적 신분과 지위가 결정되지 못하는 신분제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개탄하고 자신의 재능에 대한 자부와 불우한 처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작품이다. 초장에서 자신을 땔나무를 실은 천리마에 비유하여 능력은 뛰어난데 포교로 다녔던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중장에서 십년동안 마구간에 갇혀있듯이 하찮은 일에 매달려 청춘을 보냈다고 했다. 종장에서 재능도 없으면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9년 2월 23일 서울시 9급(A책형)

2019. 02. 23.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서 우줄거리는 양반들을 살찌고 둔한 말이라 하여 자신의 불만을 표출했다. 사람을 짐승에 비유한 우화적 수법이다.

16. 어휘의 뜻풀이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멸차다: 재산이나 자원 따위가 매우 많고 풍족하다
② 상고대: 나무나 풀에 내려 눈처럼 된 서리
③ 안다미로: 다른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④ 톺아보다: 샅샅이 훑어 가며 살피다

16 ③ 국어생활-우리말 어휘의 뜻풀이
③의 '안다미로'는 부사로서, '담은 것이 그릇에 넘치도록 많이'의 뜻이다.
예 우리는 술을 안다미로 붓고 술잔을 부딪쳤다.
그는 사발에 안다미로 담은 밥 한 그릇을 다 먹어 치웠다.

[오답 풀이]
① 가멸차다: 재산이나 자원 따위가 매우 많고 풍족하다
예 그는 가멸찬 집안에서 부족한 것 없이 자랐다.
② 상고대: 나무나 풀에 내려 눈처럼 된 서리
예 나뭇가지에도 상고대가 허옇게 피어 있었다.
[참고] 국가직 9급(2016)에서 출제된 어휘이다.
③ 안다미로: 다른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④ 톺아보다: 샅샅이 훑어 가며 살피다
예 사람을 아래위로 톺아보지 마라.

17. <보기>는 「훈민정음언해」의 한 부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나·랏:말ᄊᆞ·미 中듕國·귁·에 달·아 文문字·쫑·와·로 서르 ᄉᆞᄆᆞᆺ·디 아·니 ᄒᆞᆯ·ᄊᆡ ·이런 젼·ᄎᆞ·로 어·린 百·ᄇᆡᆨ姓·셩·이 니르·고·져 ·ᄒᆞᇙ·배 이·셔·도 ᄆᆞ·ᄎᆞᆷ:내 제·ᄠᅳ·들 시·러 펴·디 :몯ᄒᆞᇙ·노·미 하·니·라 ·내·이·ᄅᆞᆯ 爲·윙·ᄒᆞ·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믈여·듧 字·쫑·ᄅᆞᆯ ᄆᆡᇰ·ᄀᆞ노·니 :사ᄅᆞᆷ:마·다 :ᄒᆡᅇ·ᅇᅧ :수·ᄫᅵ 니·겨 ·날·로 ·ᄡᅮ·메 便뼌安한·킈 ᄒᆞ·고·져 ᄒᆞᇙ ᄯᆞᄅᆞ·미니·라

① <보기>는 한 문장이다.
② 밑줄 친 '시러'는 한자 '載'에 해당한다.
③ 밑줄 친 '내'는 세종대왕이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④ 'ㅏ'와 'ㆍ'는 발음이 같지만 단어들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했다.

17 ③ 고전문법-고전문
'어제(御製)'는 임금이 지은 글이라는 뜻이다. '세종 어제 훈민정음'은 훈민정음 해례본(한문으로 된 훈민정음 해설 서)의 어지(語旨) 부분을 언해(諺解)한 것으로, 세종이 훈민정음을 친히 창제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밑줄 친 '내'는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이 자신을 의미한다.

[오답풀이]
① '나·랏:말ᄊᆞ·미~하·니·라'와 '내·이·ᄅᆞᆯ~ᄯᆞᄅᆞ·미니·라'의 두 문장으로 되어 있다.
② 밑줄 친 '시러'는 한자 '득(得:얻을 득)'이며, 일반적으로 '능히'로 해석한다.
・재(載:실을 재)
④ 『훈민정음해례』에서 'ㆍ'는 하늘의 둥근 모양을 본뜬 것이고, 'ㅏ'는 'ㅣ'와 'ㆍ'가 어울려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소리를 'ㆍ'와 같지만 입을 벌린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ㆍ'의 음가는 'ㅏ'와 'ㅗ'의 중간음(후설저모음)으로서, 'ㅏ'는 ㆍ에 비해 입이 더 벌어지고ㆍ는 ㅏ보다 입이 덜 벌어진다는 뜻이다.
종합하면 중세 국어의 /ㆍ/는 호칭상 '아래 아'임에도 현대 국어의 /ㅓ/[ʌ]와 비슷한 음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반면 중세 국어의 /ㅓ/는 [ʌ]보다 혀가 덜 오그라지는 [ə]였다. 'ㆍ'는 지금의 'ㅓ' 소리와 비슷하다. 'ㅏ'와는 다르다. 'ㆍ'는 'ㅏ'와 구별하여 '아래 아'로 부른 것이다.

18. <보기>의 밑줄 친 시어 가운데 내적 연관성이 가장 적은 것은?

<보기>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린거린다.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다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디치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백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아, 늬는 산ㅅ새처럼 날아갔구나!

① 차고 슬픈 것　　　② 새까만 밤
③ 물먹은 별　　　④ 늬

18 ② 현대시-시어의 의미
'새까만 밤'은 아버지가 아이에 대한 그리움으로 홀로 유리창을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고'는 상실감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이 시에서 '차고 슬픈 것', '언 날개', '물 먹은 별', 늬, '산(山)ㅅ새' 등은 죽은 어린 자식의 모습을 형상화한 시어이다.

※출전: 정지용, '유리창Ⅰ'
1. 해제: 이 작품은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과 자식에 대한 그리움을 유리창을 매개로 하여 선명한 감각적 이미지로 그려 내고 있다.
2. 핵심정리
1) 갈래 : 자유시, 서정시
2) 성격 : 상징적, 회화적, 감각적
3) 제재 : 어린 자식의 죽음

4) 주제 : 죽은 아이에 대한 슬픔과 그리움
5) 특징
① 선명하고 감각적인 이미지를 시용함.
② 감정을 절제하여 표현함.
③ 모순 어법을 구사하여 시의 함축성을 높임.
6) 구성
• 1~3행: 유리창에 어린 영상
• 4~6행: 창 밖의 밤의 영상
• 7~8행: 밤에 유리를 닦는 이유
• 9~10행: 아이의 안타까운 죽음

19. <보기>의 지문은 설명문의 일종이다. 두괄식 설명문으로 구성하고자 할 때 논리적 전개에 가장 부합하게 배열한 것은?

<보기>
㉠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언어 단위를 어절이라 한다. 띄어 쓴 문장 성분을 각각 어절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어절이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것은 문장 구성의 기본적인 성질이다.
㉡ 문장은 인간의 생각을 완결된 형태로 담을 수 있는 언어 단위이다. 문장은 일정한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지는데, 맥락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경우에는 문장 성분을 생략할 수도 있다.
㉢ 띄어 쓴 어절이 몇 개 모여서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남자가 아주 멋지다.'라는 문장 에서 '그 남자가'와 '아주 멋지다'는 각각 두 어절로 이루어져서 주어와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다.
㉣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문장 성분을 이룬 것을 구(句)라고 한다. 절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구와 구별되지만,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장과 구별된다.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19 ③ 비문학-논리적 전개 순서
두괄식 단락은 단락의 앞부분에 먼저 소주제문을 제시한 후, 이어서 여러 문장들을 통하여 그것을 서술, 전개해 나가는 방식으로 논설문이나 설명문에서 많이 쓰인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내용이 맨 앞에 제시되어야 한다. 순서대로 연결해 보면 다음가 같다
㉡ 문장의 개념
→㉠ 문장의 구성 단위를 어절이라 하고, 하나의 어절이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된다.
→㉢ 몇 개의 어절이 모여 문장 성분이 되는 경우가 있다.
→㉣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문장 성분을 이룬 것을 구(句)라고 한다.

20. <보기>의 설명에 활용된 방식과 가장 가까운 것은?

<보기>
유학자들은 자신이 먼저 인격자가 될 것을 강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뿐 아니라 백성 또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을 원칙으로 삼는다. 주희도 자신이 명덕(明德)을 밝힌 후에는 백성들도 그들이 지닌 명덕을 밝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본다. 백성을 가르쳐 그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신민(新民)이다. 주희는 『대학』을 새로 편찬하면서 고본(古本) 『대학』의 친민(親民)을 신민(新民)으로 고쳤다. '친(親)'보다는 '신(新)'이 백성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다는 취지를 더 잘 표현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반면 정약용은, 친민을 신민으로 고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정약용은 친민을 백성들이 효(孝), 제(弟), 자(慈)의 덕목을 실천 하도록 이끄는 것이라 해석한다. 즉 백성들로 하여금 자식이 어버이를 사랑하여 효도하고 어버이가 자식을 사랑하여 자애의 덕행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이 친민이다. 백성들이 이전과 달리 효, 제, 자를 실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새롭다는 뜻은 있지만 본래 글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① 시는 서정시, 서사시, 극시로 나뉜다.
② 소는 식욕의 즐거움조차 냉대할 수 있는 지상 최대의 권태자다.
③ 언어는 사고를 반영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예로 무지개 색깔을 가리키는 7가지 단어에 의지하여 무지개 색깔도 7가지라 판단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④ 곤충의 머리에는 겹눈과 홑눈, 더듬이 따위의 감각 기관과 입이 있고, 가슴에는 2쌍의 날개와 3쌍의 다리가 있으며, 배에는 끝에 생식기와 꼬리털이 있다.

20 ③ 비문학-글의 전개 방식
제시 글은 '유학자들은 자신이 먼저 인격자가 될 것을 강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뿐 아니라 백성 또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을 원칙으로 삼는다'는 중심 문장을 제시하고, 주희와 정약용을 예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친민(親民)을 신민(新民)'으로 고치는 부분에서는 주희와 정약용의 주장이 다르다는 대조의 방식도 쓰였다. 예시의 방법이 쓰인 것은 ③번이다.

[오답 풀이]
① 구분, ② 비유법, ④ 분석